두 번째 삶

‘사라짐’의 조건은 무엇인가? 과거의 ‘있음’과 현재의 ‘없음’이다. ‘사라짐’은 시간과 사건, 혹은 시간이라는 사건이 존재를 부재로 뒤바꾸는 일이다. 때로 사라진 것의 의미는 남겨진 주체의 테두리 안으로 넘쳐 깊은 웅덩이를 만든다. 그 심연을 오래 바라본 자는 다른 것에서도 심연을 본다. 발 딛는 곳마다 웅덩이인 양, 이전과 다른 의미로 되살아난 풍경에 더디 걷게 되는 것이다. 느린 배회가 이어진다.

배회의 과정에서 마주친 것들을 그리며 자신의 궤적을 기록하는 일은,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. 흰 종이 위에 흰 동그라미를 그리려면 동그라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검게 칠하면 된다. 동그라미를 그리지 않으면서 동그라미를 드러내는 것이다. 누군가 무엇의 주변을 자꾸 배회한다면, 그를 보던 이들은 이내 그가 아닌 배회의 중심지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.

왜 어떤 것들은 말할 수 없는가? 무언가를 아는 유일한 이가 사라지면, 그 무엇 또한 세상에서 사라진다. 왜 사라졌니? 채워질 수 없는 공백이 출현한다. 누군가 대신 답해 볼 수 있겠지만 그저 추측일 뿐이다. 그러니 이 공백의 출현은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는 진실의 출현인 셈이다. 나의 세계에서 누군가 사라지면, 그의 눈에 비친 나도 사라진다. 또 다른 공백의 출현이다.

그리는 일은 대상에 대한 해석을 수반하며, 해석은 입장을 전제로 한다. 끝내 알 수 없게 된 어떤 공백에 관한 추측을 해석으로, 나아가 입장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기만이다. 자신의 안정을 위해 사라진 것에 관한 일방적 판단이나 평가를 용인하는 것이다. 기만 없이 사라진 것의 공백을 다룰 수 있는 그림의 방식이 있다면 그것이 배회일지 모른다고, 나는 생각한다. 에둘러 그리기. 애꿎은 비유의 대상들을 부단히 기록하기. 알 수 없는 것을 다룬 그림이 알 수 없어 보이는 것은 당연한가? 너무 에둘러 무엇에 관한 그림인지 모르게 된다면, 그것은 여전히 세상에 관한 그림인가? 심미적 대상의 탄생으로 귀결되는 윤리는 타당한가? 생각해볼 문제다. 오늘도 내가 해 온 모든 말이 거짓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쓴다. 의심은 줄곧 나의 유일한 곁이었으니,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.

임재형